

## 2022 공인노무사 합격 수기

**합격수기 제목:** 해외대학 출신의 3년간의 고군분투기

### 수험기간:

합격한 시험은 공인노무사 시험이고, 수험기간은 총 35개월, 약 3년입니다. 저는 학부나 대학원 전공이 법학이나 경영학이 아니었기에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어려웠으며 더구나 해외에서 오래동안 공부하고 생활하여 평소에 한글로 되어있는 책은 자주 읽었지만 한글로 된 내용으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이 거의 처음이라서 동차때는 15년만에 한글로 된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처음 1년은 한글 공부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유예 때부터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그나마 내용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차같은 유예를 거쳐서 헌동차 때는 앞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토대로 나에게 가장 잘맞는 공부방법과 생활패턴을 찾아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과목별 공부법(수강 강의 및 교수님 후기, 시간 관리 방법 등):

사실 제 공부법은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반복적으로 많이 읽기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두문자를 따고 열심히 암기하기는 했지만 저는 최대한 다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공부 전체적으로 4과목 다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여러 번 보는 것보단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 노동법

저는 처음부터 2차 커리큘럼을 따라갔기 때문에 따로 1차 노동법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0기와 1기를 그대로 따라갔고 시험 전 부속법령 특강을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채워나갔습니다.

#### 2. 민법

가장 먼저 민법 공부부터 시작하였지만 가장 힘들게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전공이 법학이 아니

기에 너무 생소한 부분이 많았고 이해하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기본강의를 먼저 수강하였고 그 뒤에 혼자 문제풀이를 반복하였습니다. 기본서는 전체적으로 본 것은 3회독 정도 되는 것 같고, 잘 모르는 부분은 그 부분만 여러 번 봤습니다. 민법도 앞서 말했듯이 문제풀이를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기본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막연했던 것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해되고 깨닫게 된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 3.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은 3월에 기본강의를 한번 수강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하였고, 이후 최종 마무리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암기하였고, 크게 힘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4. 경영학개론

가장 편하게 공부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인사관리와 경영조직에서 많이 출제 되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고, 생산관리와 마케팅관리 파트만 2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 2차공부

0기와 1기 때는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여러 번 기본서를 읽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2기와 3기 때는 모의고사는 꼭 보았고,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암기를 하였습니다.

### 1. 노동법

기본서를 중심으로 여러 번 읽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 선생님은 판례원문을 나눠주셨는데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판례내용을 이해하는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0기 때는 판례를 한번 그대로 베껴 쓰기를 하였고 판례를 꼼꼼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권화 교재는 따로 하지 않았고 기본서인 통합노동법에 단권화하여 반복하여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칠 때 의의와 취지, 판례는 그대로 쓰려고 노력하였고 사안의 포섭은 실전이라 생각하고 공들여 썼습니다.

### 2. 인사노무관리

시작은 수월했으나 막판까지 가장 괴롭게 한 과목이었습니다. 최종락 선생님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저(박경규 신인사관리)를 먼저 정독한 뒤 1기부터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단권화 역시 기본서에 했습니다. 인사관리는 그래프나 표, 그림은 그려보면서 외웠고, 정의는 꼭 외우려고 노력했고,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보다는 기본서를 여러 번 보려고 노력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쪼개서 보았습니다. 인사노무관리 기본서는 매우 두껍기 때문에 한번에 다 읽는 것이 쉽지 않았기

에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등등 파트 하나하나를 회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마인드맵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3.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은 인사관리와 반대로 진입은 어려웠으나 마지막에는 가장 덜 힘들게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요...) 암기 부담이 크지 않고 과목의 특성상 수학 공부를 하듯이 공식이 있고 그것을 기본으로 응용을 하면 되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서 역시도 소송절차에 따라 진도가 이어가긴 하지만 기본서를 읽을 때도 절차를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정선균 선생님의 말씀대로 행정소송법 기본서는 10회 이상은 읽은 것 같고, 행정소송법은 통으로 외웠습니다. 10회 이상 읽으면 따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사례 연습은 모의고사와 연습책 이외에는 따로 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나눠준 문제와 연습책 문제를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해결만 직접 손으로 쓰면서 연습하였습니다.

### 4. 민사소송법

가장 재밌게 공부하였지만 마지막 암기 부담에 허덕인 과목입니다. 행정과 마찬가지로 절차법인 점을 염두에 두어 절차를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김광수 선생님 단문집을 중심으로 공부하였고, 단문집에 없는 사례에만 나오는 내용은 따로 만들어 단문집에 추가하여 단문집을 여러 번 반복하여 봤습니다. 사례 연습은 선생님이 주신 문제만 거의 보았고, 단문 암기에 비중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암기는 먼저 목차를 외우고 중요한 판례나 키워드 중심으로 목차 아래 채울 내용을 암기하였습니다. 행정과 마찬가지로 사례문제는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해결은 직접 손으로 써서 연습하였고, 단문은 목차나 키워드 등을 암기하고 손으로 써보면서 외웠습니다.

### 단기사이트, 서비스, 콘텐츠 활용 팁:

노무사단기의 최대의 장점을 배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간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난 강의를 여러번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가 약한 과목의 강의를 다시 듣고, 정말 이해가 안되고 어려운 부분은 여러번 돌려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동차에서 유예로 넘어갈 때 선택과목을 경영조직론에서 민사소송법으로 변경하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과목은 이미 한번씩이라도 봤던 과목이라 익숙한 반면에 민사소송법은 처음하는 것이라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기 강의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빠른 배속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재를 읽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더 좋

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릴때부터 텍스트로 된 콘텐츠보단 영상으로 된 콘텐츠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비교적 잘 습득하는 편이라서 이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행정쟁송법을 처음 공부할 때도 0기와 1기 강의를 두번 이상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방에서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나태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김영 선생님의 라이프케어를 신청하여 매일 매일 독서실 출석체크를 하였고, 매주 계획을 제출하여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게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2기와 3기때는 모의고사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서 비용이 들더라도 온라인 침식권을 꼭 구매하여 모든 모의고사에 참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험생,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사실 저도 제가 합격할 것이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고, 제 공부방법과 습관이 저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기에 다른 분들에게도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꼭 지키려고 하였던 것은 하루를 단순하게 살기였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뜨면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독서실로 갔고, 공부하고, 식사도 도시락을 먹고,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몇 곳을 정해서 가던 곳만 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나 슬럼프 극복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며 지루하고 힘들어도 일단 책상에 앉아 있었고 억지로라도 책을 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